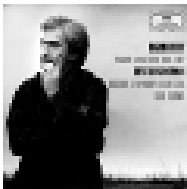


한충완 4집 回色 / EMI

피아니스트로서 주로 재즈와 힙합, 국악 등 여러 장르와의 접목을 통해 다양한 음악을 시도했던 한충완의 새로운 음반, 3년 만에 발표하는 솔로 음반으로 결코 평범하지 않은 앞선 그만의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솔로 피아노'라는 또 하나의 색깔을 덧칠하여 돌아왔음을 의미하는 「回色(회색)」. 뉴에이지 스타일의 음반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솔로 피아노 음반들의 평범한 성향에서 탈피, 좀더 고급스럽고 진정한 '음악'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어 역시 한충완의 독특한 느낌만은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Rachmaninov : Piano Concerto Nos.1 & 2 / Universal

거칠 것 없는 감정 표현은 라흐마니노프의 생애를 관통하는 가장 뚜렷한 음악철학이었고 이 앨범에 실린 첫 두 개의 피아노 협주곡은 그 철학이 발현된 좋은 예이다. 그를 추방으로 내몬 혁명 이전의 젊은 시절, 러시아에서 작곡된 이 협주곡들은 전통적인 3악장 구조에 작곡가 고유의 개성, 즉 걱정과 우아한 선율, 러시아 정교의 교회음악과 종소리로 채색된 풍성하고도 정밀한 짜임새로 이루어져 있다.



Dreams 2 / BMG

1집과 마찬가지로 이 앨범에 포함되어 있는 뮤지션들의 면면은 지금껏 나왔던 유사한 분위기의 앨범 가운데 최고라고 말해도 과장이 아닐 만큼 화려하다. 조지 윈스턴은 모든 저널로부터 만점에 가까운 리뷰를 얻어 낸 초기 걸작이자 사계절 연작 시리즈의 시발점에 해당하는 앨범 「Autumn」의 수록곡 'Colors/ Dance'를 앨범을 위해 기꺼이 내놓았고, 이국적이면서도 풍부한 현악 연주로 국내에서 플래티넘 세일즈를 올렸던 시크릿 가든의 출세작 'Adagio'가 앨범의 전반부를 장식한다. 북미와 일본을 거쳐 한국에까지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를 제공해줬던 피아니스트 앙드레 가농의 아름다운 연주 'Les Jours Tranquilles'(조용한 날들)도 수록되었다. 국내의 크로스오버 음악 판매 차트에서 늘 TOP5에 오르는 연주자들 대부분 이 앨범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Kiss / BMG

일본 최정상 뮤지션들의 베스트 러브 발라드 모음집.

총 15곡으로 구성된 이 음반은 1991년 드라마 〈동경 러브 스토리〉의 주제가 '러브스토리는 갑자기'를 필두로 최초로 컴필레이션에 수록되는 차게 앤 아스카의 곡 '101번째 프로포즈'의 주제가 'Say Yes', 드라마 〈내일이 있으니까〉의 주제가 'Piece of my wish' 등이 수록되었다.



Baby Baby / EMI

14곡의 클래식을 5가지 경우로 나누어 시간대별로 들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엄마가 가장 편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아침, 식사시간, 알하는 시간, 휴식시간, 잠자리에 들 때 등 5개의 시간에 가장 적합한 음악들을 선별, 음악듣기 최적의 시간인 10~15분씩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정경화, 백건우, 백혜선, 카라얀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연주와 모차르트, 바흐, 헨델 등 다른 클래식 곡보다도 음정과 박자, 화음의 균형이 뛰어난 태고음악으로 최고의 곡들만 엄선했다.



25현 가야금을 위한 창작음악집 / 서울음반

KBS FM 기획 한국의 전통 음악시리즈-41. 일찍이 민요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자신의 작품 소재로 즐겨 사용했던 김희조를 비롯해서, 백대웅, 이간웅, 황의중의 중견 작곡가, 그리고 류건주라는 신예작곡가의 작품도 함께 하고 있다. 이들 작곡가들의 민요를 다루는 솜씨는 각기 다르지만, 민요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민요들은 25현 가야금이라는 새로운 그릇에 담기게 되었다. 이 음반에 수록된 음악들을 통해서 이제 전통적인 정서는 물론이요, 현대적인 감성을 담아낼 수 있는 악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며, 앞으로 보다 시대와 호흡할 수 있는 악기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